



한화 정우주

LG 송승기

강등 악몽서 3연승 맨유 '부활의 조짐'

음비모 멀티골 활약에 천적 브라이턴 잡고 리그 4위로 아모링 감독 "힘든 경기였지만 고통 없다면 맨유 아냐"

잉글랜드 프로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후벤투 아모링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 처음으로 3연승을 내달렸다. 맨유는 20일(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5-2026 EPL 9라운드 홈 경기에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 4-2로 이겼다. 선덜랜드와 7라운드에서 2-0, 리버풀과의 '노스웨스트 데비'로 치러진 8라운드에서 2-1로 승리한 맨유는 이로써 3연승을 기록, 4위(승점 16)로 치고 올라갔다. 아모링 감독은 처음으로 리그 3연승을 달성했다.



멀티골로 승리를 가져온 음비모(앞). AP-연합뉴스

지난 시즌 강등권 언저리인 15위까지 추락하고, 올 시즌 초반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맨유의 갑작스러운 반등이다. 브라이턴은 맨유의 '천적'으로 자리매김한 팀이었다. 최근 7차례 리그 맞대결에서 맨유는 1승 6패로 크게 밀렸고, 전 경기의 절반에서 두 점 이상 격차로 무너졌다가 이번에 제대로 되찾아왔다.

전반 24분 마테우스 쿠냐의 중거리 골로 앞서나간 맨유는 10분 뒤엔 압박으로 뻗은 공을 카제미루가 중거리슛으로 연결한 것이 수비수 몸을 맞고 굴절되며 골대대로 들어가 2-0으로 달아났다. 후반에는 브라이턴 음비모가 멀티골을 터뜨려 승리를 굳혔다. 음비모는 후반 16분 베나민 세슈코의 패스를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3-0을 만들었다.

투수 오타니 나가신다... 생애 첫 WS 등판

오타니 쇼헤이(31·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가 29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월드 시리즈(WS) 4차전에 선발 등판한다.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가 '투수'로 WS에 나서는 건, 올해 4차전이 처음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26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WS 2차전이 열린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3, 4차전 선발 투수

를 공개했다. 로버츠 감독은 MLB닷컴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3차전은 타일러 글래스노우, 4차전은 오타니가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3차전 선발은 맥스 셔저, 4차전 선발은 셰인 비버다. 오타니는 다저스로 이적한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MLB 가을무대를 누비고 WS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하지만 투수로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 후 재발 시즌을 보내 지명 타자라면 가을잔치를 즐겼을 것이다. 오타니는 6월부터 투타 겸업을 재개했고 정규시즌에서 투수로 14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2.87을 올렸다.



AFP-연합뉴스

KS 불펜 '특급 신인' 자존심 대결



염경엽 LG 트윈스 감독과 김경문 한화 이글스 감독은 한국시리즈(KS) 미디어데이에서 송승기(LG)와 정우주(한화)를 키 플레이어로 꼽았다. 올해 프로야구 KS에서 둘은 팀의 핵심 불펜으로 뛴다. 김 감독의 선택은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선수를 예우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도 정우주는 강력한 구위를 무기로 KS에서 팀의 '허리'를 책임진다. 한화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PO)에서 문동주를 '통릴리프'로 썼다. 문동주는 18일 1차전에서 20년 1피안타 무실점(홀드), 3차전에서 40년 2피안타 무실점(구원승)으로 호투해, PO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김경문 감독은 PO(5전 3승제)보다는 장기전인 KS(7전 4승제)에서는 문동주를 선발로 기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화에서 가장 믿을만한 구원 투수는 정우주다. 정우주는 18일 PO 1차전에서 구원 등판해 ⅔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문동주의 불펜 이동으로 생긴 선발 공백도 정우주가 메웠다. 정우주는 22일 4차전에 선발 등판해 3⅓이닝 3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으로 호투했

물 오른 구위, 한화 정우주
불꽃 직구로 PO서 삼성 물 먹여 LG전 7경기 3실점에 삼진 10개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구원 천사

LG 불펜 키플레이어, 송승기
올해 마운드 올라감놀 실력 과시 정규시즌 선발서 전격 보직 교체 한화노시환·문현빈 특급길러 활약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대진

문동주 • 11승 5패 • 평균 자책점 4.02 • 탈삼진 135	2차전 10월 27일(월·서울) 3차전 10월 29일(수·대전) 4차전 10월 30일(목·대전) 5차전 10월 31일(금·대전) 6차전 11월 2일(일·서울) 7차전 11월 3일(월·서울)	오스틴딘 • 타율 0.313 • 홈런 31·타점 95 • 안타 133
---	--	---

2025 KBO KOREAN SERIES

한화 이글스	신한 S-Oil Bank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신한 S-Oil Bank	LG 트윈스

7승 1무 8패 정규시즌 상대 전적 8승 1무 7패
83승 4무 57패 정규시즌 성적 85승 3무 56패
2위(1.5게임차) 정규시즌 순위 1위
19년 만(2006년) 한국시리즈 진출 2년 만(2023년)
1회(1999년) 한국시리즈 우승 3회(1990·1994·2023년)

연암뉴스 자료 한국야구위원회(KBO)

다. 당시 삼성 타자들은 정우주의 높은 직구에 여러 번 헛스유했다. 정우주의 장점인 직구 수직 무브먼트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정우주의 직구는 다른 투수의 직구보다 더 높은 궤적으로 날아왔고 삼성 타자들은 정우주의 공 아래로 스윙하기 일췌였다. 정규시즌에서 정우주는 LG전 7경기에서 70년 5피안타 3실점(평균자책점 3.86)했다. 사사구를 8개(볼넷 4개, 몸에 맞는 공 4개)나 내줬지만, 삼진도 10개를 잡았다. 올해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대형 신인' 정우주와 LG 타선의 힘대결 결과는 KS 승패와 직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불펜 고인비 큰 LG는 송승기를 불펜으로 돌려 허리를 강화했다. 송승기는 올해 LG 마운드에 등장한 신데렐라다. KS에서는 '긴 이닝 소화도 가능한 불펜'으로 힘을 보탠다. 16⅓이닝 동안 안타는 13개만 내줬다. 특히 한화 타선의 핵인 노시환(6타수 무안타)과 문현빈(9타수 2안타)을 잘 막았다. KS에서도 송승기가 경기 중후반에 문현빈, 노시환을 잡아내면 LG의 기세는 더 오를 수 있다. 스키아데일리·연합뉴스

저렴하게! 푸짐하게! 알찬구성 무려 240포!

(8박스)

건강한 흑염소, 活力있는 오늘을 위하여!

100% 국내산 흑염소와 홍삼까지...

2,000,000 포 달성을 도와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축검사증명서

맑은 산 속에서 자연방목한 100% 국내산 흑염소를 엄선하였습니다.

이런 분에게 권해 드립니다

- 쉽게 몸이 지쳐 자주 피로를 느끼시는 분
- 기력이 예전만 못하게 약해 건강식품을 찾는 분
- 튼튼한 체력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
- 부모님을 비롯한 소중한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으신 분

100% 국내산 자연 방목 흑염소 국내산 흑염소에 홍삼까지...! 흑염소, 홍삼, 갈근, 대추, 생강, 천궁, 작약, 속지황, 당귀 등 제대된 배합으로.. 알차고, 진하게! 품질을 최우선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HACCP 안전관리인증

80ml×30포 (1박스)

HACCP 제조환경에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제조원: 농업법인 (주)웃기네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43 ● 판매원: (주)웃이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2길 1

제품주문 / **1588-3398** | 농협 301-0253-2226-11 주식회사 웃이랑

· 무료배송 · 신용카드 · 무이자 할인혜택

행사기간: 2025년 12월 31일 까지

2박스(60포) ₩99,800 → ₩69,800
4박스(120포) ₩199,600 → ₩128,000
8박스(240포) ₩399,200 → ₩199,000

· 무료배송 · 50% 할인행사